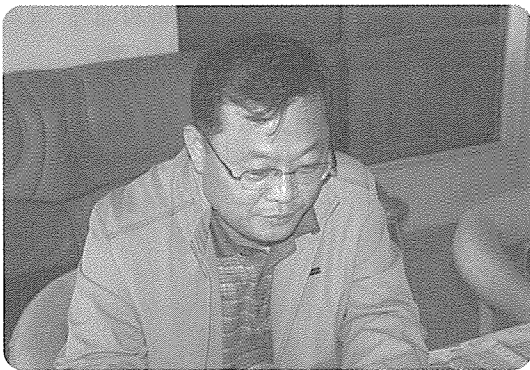


다양한 아이디어와 철저한 관리로 건강한 비육돈을 생산하는 전남 무안의 승지축산



취재 - 배승한 · 박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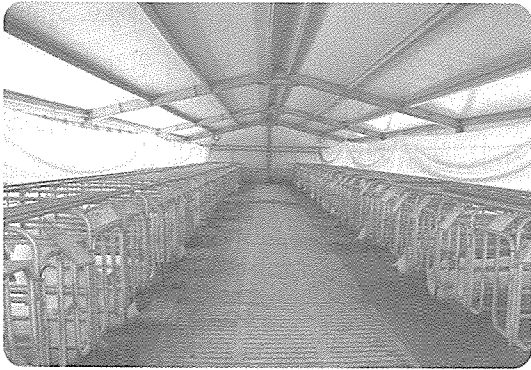
▲ 손승용 사장(사진)은 박건용 수의사의 철저한 시설, 환기 컨설팅을 거쳐 환기시설을 설계하고 환기시스템을 시설한 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며 농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전남 무안의 승지축산을 경영하고 있는 손승용 사장은 올해 초 3,000두 규모의 농장을 5,000두 규모로 확장했다. 손승용 사장은 확장 당시 환기

시설에 무엇보다 신경을 썼으며 박건용 수의사의 꼼꼼한 시설, 환기컨설팅을 거쳐 환기시설을 설계하고 환기시스템을 시설한 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승지축산은 현재 모돈 543두 규모로 평균 포유두수 10.08두, 이유두수 9.3두를 보이고 있으며 수태율 95%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손승용 사장은 “용돈을 이용해 이유 모돈의 상태를 철저히 관찰한 후 교배적기를 잡는다. 또한, 이유후 철저한 사양관리로 모돈의 자궁내 강건성을 유지해 발정이 정상적으로 오도록 관리하고 있다”라며 높은 수태율의 비결을 밝혔다.

바닷가에 위치한 농장의 지역적 특성상 강한 바람이 밀물과 썰물시 불기 때문에 양돈장 단열관리에 불리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손승용



▲ 모돈의 순산과 튼튼한 자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모돈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임신말기에 한쪽라인스톨과 다른쪽 라인스톨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두어 임신말기 모돈들을 운동시키고 있었다.



▲ 스톨폭 공간을 넓힌 것은 임신말기의 모돈들이 좁은 공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특히 여름철에 모돈들이 더위를 타는 것이 많이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모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

사장은 임신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 무창돈사시설로 철저한 단열과 섯바람 관리로 강한바람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있었으며 농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손승용 사장의 이러한 몇가지 경영기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임신 말기 군사실시

손승용 사장은 모돈의 순산과 튼튼한 자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모돈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임신말기에 한쪽 라인스톨과 다른쪽 라인스톨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두어 임신말기 모돈들을 운동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 임신말기 모돈들이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어 분만시 난산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손승용 사장은 임신 말기사의 스톨넓이를 일반적인 스톨폭인 65cm에서 80cm로 넓혔다. 스톨폭 공간을 넓혀 임신말기의 모돈들이 좁은 공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특히 여름철에 모돈들이 더위를 타는 것을 줄여줬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돈의 지체 강건성을 유지시켜 87%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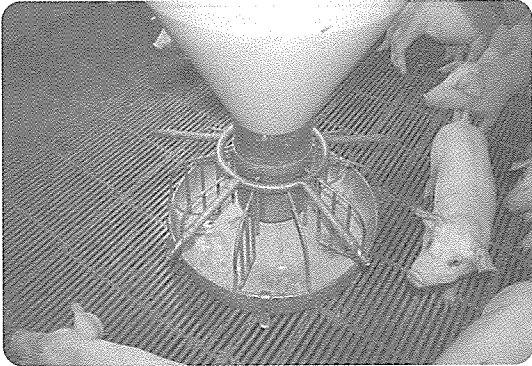
의 높은 분만율을 유도하면서 모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스톨이 넓으면 모돈이 거꾸로 돌아설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질문하자 손승용 사장은 “스톨의 넓이를 바꾼지는 약 9개월 전인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스톨 넓이 변경 후 모돈이 더욱 안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건강해져 높은 분만율을 보이고 있다. 다른 농장에도 이를 추천하고 싶다”라며 임신사 스톨의 일부는 스톨의 넓이를 80cm폭으로 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농장현장에 맞는 아이디어의 시험장

① 원형급이기의 변형

승지축산 이유자돈방의 원형급이기를 살펴보면 일반 원형급이기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위쪽에 달린 니뿔이 길게 사료통 밖으로 나와있다. 이는 여름철 이유자돈들이 사료에 물을 섞어 일반 사료 섭취량이 1/3수준에 머무는 것을 방지한 것으로 사료와 물급이 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수 있다. 농장의 컨설팅을 맡고



▲ 위쪽에 달린 니빨이 길게 사료통 밖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여름철 이유자돈들이 사료에 물을 섞어 일반 사료 섭취량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료 섭취로 이유자돈들의 강건성과 면역력이 증가될 수 있다.

있는 박진용 수의사는 “자돈구간에서 사료섭취량은 다른 어느구간보다 중요하다. 스트레스에 제일 민감한 시기이고 스스로의 면역력을 만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료섭취를 통한 자돈의 강건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② 이중 윈치커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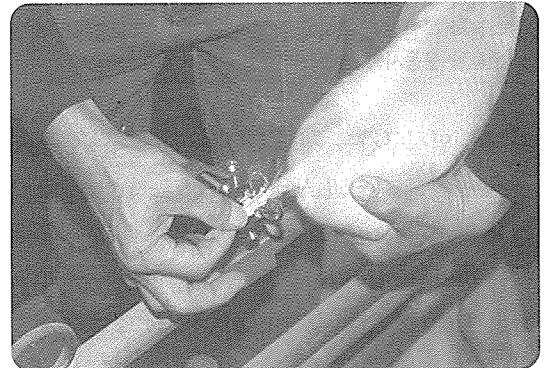
승지축산의 임신사는 이중으로 윈치커튼이 설치되어 있다. 지역적 특징상 바람이 많이 불어 윈치커튼을 하나만 했을 경우, 입기구쪽으로 강한 바람이 들어올 수 있어 임신돈에게 유산, 사산 등 치명



▲ 윈치커튼을 두 개로 한 것은 돈사내 강한 바람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돈사내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손승용 사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해 임신사에 두개의 윈치커튼을 이용해 공기의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고 있었다. “윈치커튼을 두 개로 한 것은 돈사내 강한 바람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돈사내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쉽게 조절하면서 쉽게 환기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손승용 사장은 밝혔다.

③ 포유자돈의 단미·견치의 방법개선



▲ 네델란드 전기단미기는 고정식으로 꼬리를 잡고 전기단미기에 잘라주는 방식인데 꼬리를 자를시 밑에서 위로 자르는 방식이다.

손승용 사장은 지난 9월 양돈협회에서 주관한 네델란드 PTC+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손승용 사장은 당시 네델란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유자돈 견치기를 보았는데 견치작업시 견치를 자르지 않고 윗견치만 두 개 가는 것을 보고 이를 농장에 바로 도입하였다. “기존의 견치를 자르는 방법은 자돈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견치가 잘리지 않고 멍그려질 경우 세균 감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견치를 갈아주는 방법을 택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네델란드 전기단미기는 고정식으로 꼬리를 잡고 전기단미기에 잘라주는 방식인데 꼬리를 자를시 밑에서 위로 자르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꼬리 혈관이 밑쪽에 많이 있어 밑부분부

박건용 수의사가 이야기하는 농장 할기 점검 포인트 !!

- ❶ 돈사내 환기를 개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은 돈사내 단열이다. 즉 단열이 우선 잘 되어있어야 환기가 잘 될 수 있다. 환기를 했는데 적정온도가 관리 되지 않는다면 환기는 실패한다. 또한 겨울로 가면 갈수록 단열이 안된 돈사의 환기는 돼지에게 피해가 배가 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 ❷ 컨트롤러의 센서 위치를 확인한다.(센서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돈사내 환기량은 달라진다.)
- ❸ 컨트롤러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컨트롤러 박스와 센스의 연결 상태 확인하고 실제 온도와 맞게 잘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센서부위에 일반온도계를 설치한다)
- ❹ 센서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만약 녹이 있을 경우, 평상시 온도의 2~3도 높게 측정된다.)
- ❺ 입기구, 배기팬의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 ❻ 3년 이상 쉘을 사용 했을시 주기적으로 쉘의 상태를 점검한다.(입기량과 배기량을 처음에 잘 계산했다고 해도 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거나 고장유무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속도로 쉘컨트롤러에 환기량을 지정해 주어도 작년과 올해의 환기량은 달라 질 수가 있다.)
- ❼ 돈사내 공기흐름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한번 들어온 공기는 돈사내에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일정 시간동안 머물러 있어야 한다. 만약, 너무 빠른 돈사내 공기 순환은 -과환기- 빠른 공기흐름으로 습기가 과다 배출되며, 많은 열이 공기의 배출 때 함께 달아나므로 돈사 내 온도를 떨어뜨리며 저습환경으로 인해서 병원성 미생물이 퍼지고 먼지가 많이 나게 되어 호흡기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계절에 따른 적절한 공기의 순환이 중요하다. 돈사내 온도를 에너지 개념으로 생각하면 과환기는 에너지 낭비로 농장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 ❽ 돈사내 환기를 점검할시, 항상 지속적으로 돼지를 관찰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담당 환기 컨설턴트와 연락을 취해, 환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과학적인 접근(유속측정, 포그머신을 이용한 공기흐름, 단열점검)이 있어야 한다.
- ❹ 환기량을 계산시 필요로 되어지는 환기량의 큰 쉘보다는 세분화된 작은 쉘을 사용해 세심한 환기의 관리가 필요하다.
- ❿ 환기컨설팅은 일회가 아닌 지속적인 컨설팅의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
- ⓫ 환기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관리자에게 있음을 주지하고 환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지속적인 관찰로 내 농장에 맞는 환기를 해야 한다.
- ⓬ 돈사내 환기에 대한 변화를 줄 시에는 돼지와 돈사내 온도, 습도에 대한 일주일 이상 꾸준한 관찰과 기록이 필요하다.(가장중요한 포인트이다)
- ⓭ 환기의 답은 돼지의 상태가 답이다.
- ⓮ 무창돈사의 관리는 꾸준한 시설관리(유지, 보수)가 생명이다.



▲ 돈사내 과도한 환기로 인한 너무 빠른 공기 순환은 습기의 과다 배출과 많은 열손실을 가져와 돈사 내 온도를 떨어뜨리고 저습환경으로 인해서 병원성 미생물이 퍼질 뿐만 아니라 먼지가 많이 나게 되어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터 자를시 쉽게 꼬리 출혈을 멈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기시설의 대폭적인 개선

승지축산은 올해 3월초 농장을 5,000두 규모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박건용 수의사의 시설 환기컨설팅을 통해 환기시설을 설치(육성돈 4동)했으며 지금도 지속적인 시설, 환기 유지관리컨설팅을 통해 계절마다 환기시설을 점검하고 있었다. 박건용 수의사는 돈사내 환기시설을 설치하거나 컨설팅을



▲ 손승용 사장은 박건용 수의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만남과 질병, 시설, 환기컨설팅을 통해 농장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었다.(사진 좌측부터 두번째 박건용 수의사, 네번째 손승용 사장)

할 때 위와 같은 사항을 점검한다고 말한다. 승지축산 역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농장을 떠나며...

손승용 사장은 평상시 지역 세미나나 교육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를 농장에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손승용 사장은 “지금 27여년간 농장을 경영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우리 농장에 필요한 외부 기술을 빨리 농장에 접목하고 싶다. 우리나라 농장주들은 대부분 자신의 경험만 믿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항상 자신의 기준을 새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위 컨설턴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면 농장 경영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라고 평소 자신의 농장 경영 방침을 설명했다.

실제 손승용 사장은 박건용 수의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만남과 질병, 시설, 환기 컨설팅을 통해 농장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었다. 박건용 수의사는 “승지축산의 강점은 지속적인 질병, 시설, 환기컨설팅을 통해 농장 문제점을 꾸준히 투자하면서 개선했고, 농장의 모든 상황이 전산화, 도식화 되어있다는 점이다. 이는 농장 경영의 효율성을 높혀 줄 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변화에 따라 농장 성적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다.”라며 승지축산의 강점을 설명했다.

승지축산을 떠나면서 지속적인 질병, 시설, 환기컨설팅을 통한 농장 문제점 개선에 꾸준한 돈사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위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농장주의 여유 있는 마음이 농장의 튼튼한 생산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임을 알 수 있었다. **양국**